

수변 랜드마크

Bunker 599 + 6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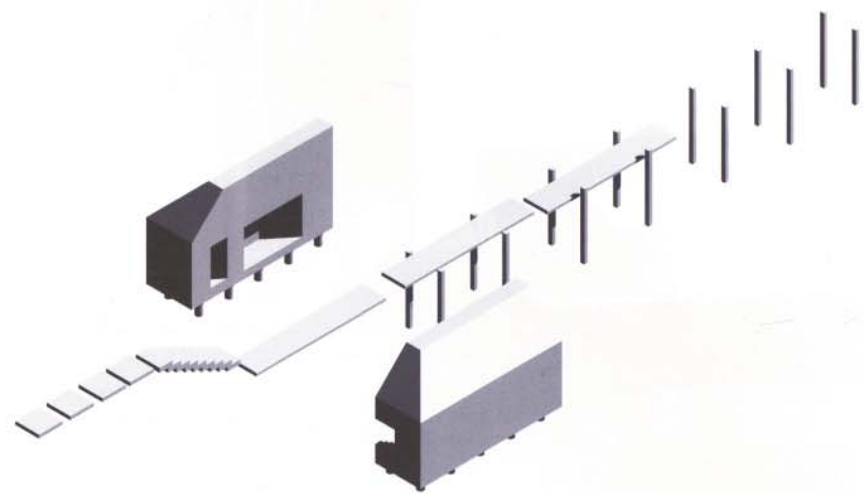
'Bunker 599 + 603'는 버려진 군사용 벙커를 재활용한 공간으로 네덜란드의 관광명소 중 하나다. 이번 프로젝트를 기획한 Reitveld landscape는 기존의 벙커를 돌로 절개해 내부의 견고함을 부각시키는 한편, 방문객들의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 곳곳에 체험 요소를 배치했다. editor 김미현 translator 송정준

이번 프로젝트는 두 가지의 비밀을 가진 New Dutch Waterline(뉴 터치 워터라인·NDW)에서 진행됐다. NDW는 1815년부터 1940년까지 의도적으로 홍수를 일으켜 Muiden(모이텐), Utrecht(위트레흐트), Gorinchem(호린헴) 등의 도시를 보호했던 군사 방어선이다. 외관은 쉽게 부서지지 않을 기념비와 같은 벙커가 슬라이스 형태로 잘려 열린 형태다. 또 이번 프로젝트로 인해 NDW에 있던 700개의 벙커 중 한 곳의 내부도 일부 공개됐다. 내부는 완전히 외부와 단절된 모습이다. 목재로 만들어진 긴 길은 육중한 건물 사이를 가로지른다. 그것은 방문객들을 침수지역과 자연 저수지가 있는 가까운 오솔길로 이끈다. 이외에도 교량과 교량을 지지하는 기둥들은 방문객들에게 저수지가 모래를 퍼내서 형성된 단순한 것이 아닌, 전시 동안만 범람 시키는 얇은 물웅덩이라는 것을 알린다. 특히 잘려진 벙커의 형태는 NDW의 방문객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한다. 이 벙커는 근처 A2 고속도로에서 바로 보이는 곳에 위치하고 있어 하루에도 수십, 수천 명의 관광객들이 방문하고 있다. 한편, 제작사인 Rietveld Landscape Atelier de Lyon은 이 프로젝트를 통해 보다 다양한 방문객들에게 네덜란드의 역사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This project lays bare two secrets of the New Dutch Waterline (NDW), a military line of defence in use from 1815 until 1940 protecting the cities of Muiden, Utrecht and Gorinchem by means of intentional flooding. A seemingly indestructible bunker with monumental status is sliced open. The design thereby opens up the minuscule interior of one of NDW's 700 bunkers, the insides of which are normally cut off from view completely. In addition, a long wooden boardwalk cuts through the extremely heavy construction. It leads visitors to a flooded area and to the footpaths of the adjacent natural reservoir. The pier and the piles supporting it remind them that the water surrounding them is not caused by e.g. the removal of sand but rather is a shallow water plain characteristic of the inundations in times of war. The sliced up bunker forms a publicly accessible attraction for visitors of the NDW. It is moreover visible from the A2 highway and can thus also be seen by tens of thousands of passers-by each day. The project is part of the overall strategy of Rietveld Landscape Atelier de Lyon to make this unique part of Dutch history accessible and tangible for a wide variety of visitors.



eft page 외관은 쉽게 부서지지 않을 기념비와 같은 방커가 슬라니스 형태로 질려 열린 형태다. 기존의 방커를 둘로 절개해 내
 운의 견고함을 부각시켰으며, 방문객들의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 곳곳에 체험 요소를 배치했다. 1 이 방커는 A2 고속도로에서
 차로 보이는 곳에 위치하고 있어 하루에도 수십, 수천 명의 관광객들이 찾는다. 2 이번 프로젝트로 인해 NDW에 있던 700개의
 방커 중 한 곳의 내부가 일부 공개됐다. 내부는 완전히 외부와 단절된 모습이다.



client_DLG (The Dutch Service for Land and Water Management) designers_Rietveld Landscape/
Atelier de Lyon location_Diefdijk - Highway A2 status_completion 2010

left page 잘려진 벽과 사이를 긴 목재로 잡아 만든 길이 가로지른다. 그리고 그것은 방문객들을 침수지역과 저면 저수지가 있는 가까운 오솔길로 이끈다.